

# 제3절 고려후기 사원세력과 송광사\*

## 1. 고려후기의 사원세력

### 1) 무신란 전후 불교계의 동향

한국 불교는 신라 말에 교종과 선종의 논리적인 사상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고려시대로 오면서 교종과 선종의 논리를 절충하는 방향으로 사상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곧 고려시대 한국 불교의 발전방향은 교종과 선종사상을 융합하려는 것이었다. 이미 고려 초기에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사상을 융합하려는 경향과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사상을 융합하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전자가 탄문(坦文)으로 대표되었다면 후자는 현휘(玄暉)로 대표되었다.<sup>1)</sup>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사상을 융합하려는 경향은 일단 의천이 집대성하였다. 그는 송에 유학하여 진수(晋水) 정원(淨源)의 문하에서 화엄을 익혔으며, 자변(慈辨) 종간(從諫)에게 천태(天台)사상을 전수받아 귀국 후 천태종을 개창하였을 뿐 아니라, 광범위한 경전을 수집하여 속장경(續藏經)을 조판하였다. 의천은 중국 화엄종과 천태종의 정통파를 계승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sup>2)</sup> 문벌귀족 중심의 불교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의천의 개혁방향은 문벌귀족체제에 맞서 왕권강화를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도 또한 본질적으로 문벌귀족과 동일한 기반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sup>3)</sup>

고려 중기 이후 불교는 교종을 중심으로, 특히 문벌귀족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번성하였다. 의천의 화엄종이나 천태종 이외에 법상종(法相宗)이 당시의 권문인 인주 이씨와 결탁하여 크게 떨치고 있었다. 그리하여 문벌귀족과 결탁된 불교종단 사이에 대립이 일어났고, 그런 과정에서 의천은 법상종세력에 밀려 흥왕사(興王寺)에서 해인사로 쫓겨났다. 의천이 다시 흥왕사로 돌아온 것은 숙종이 즉위하여 인주 이씨세력이 한풀 꺾이고 난 다음이다.

이러한 법상종세력의 흥룡은 문벌귀족과 결탁된 12세기 고려 불교계의 단면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화엄종 등 교종불교는 문벌귀족세력과 연결되어 있었다. 1170년 정중부 등이 주도한 무신란은 군인·무신세력의 성장과 문신귀족에 대한 불평·불만이 누적되어 일어났다. 무신정권이 성립된 초기에는 무신 상호간에 정권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며, 농민과 천민의 난이 이어져 고려사회는 오랫동안 안정되지 못하였다. 최충헌이 등장하여 최씨정권이

\* 제3절은 김두진(金杜珍) 집필임.

1) 김두진, 「玄暉(879~941)와 坦文(900~975)의 불교사상」, 『高柄翊先生回甲紀念 史學論叢』, 1984, 395~405쪽.

2) 淨源은 中國華嚴의 正統派인 法藏의 사상적 전통을 이었으며, 從諫은 중국 천태종의 정통파인 山家派의 거장인 四明知禮의 法孫이다. 따라서 그가 중국 천태종의 비정통파인 山外派의 사상에 접했다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3) 蔡尙植, 「13세기 信仰結社의 성립과 사상적 경향」, 『高麗後期佛敎史研究』, 一潮閣, 1991, 14쪽.

성립하면서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다.

무신란으로 말미암아 고려사회는 많이 변화하였다. 우선 무신들은 김부식으로 대표되던 문신 문벌귀족세력을 억압하여 거세하였으며, 이들과 연결되었던 화엄종을 위시한 교종불교세력을 은근히 탄압하였다. 불교계에 대한 개편은 무신란 초기에는 급격하지 않았지만,<sup>4)</sup> 1196년 이후 최충헌이 등장하면서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 무신들은 문벌귀족세력을 몰아내면서 그들과 결합되어 있던 교종불교세력을 억압하였다.

최충헌이 등장하면서 불교계의 저항이 계속되었는데, 그것은 주로 화엄종 등 교종계통의 승려들이 일으켰다. 최충헌이 등장하기 이전인 1174년(명종 4)에도 중광사(重光寺)·홍호사(弘護寺)·귀법사(歸法寺)·홍화사(弘化寺)의 승도(僧徒) 2,000여 명이 이의방(李義方) 형제를 죽이려고 쳐들어왔다가 격퇴되기도 했다.<sup>5)</sup> 그렇지만 무인정권에 대한 승려들의 반항은 주로 최충헌 집권시기에 일어났다. 1197년 최충헌이 홍왕사에 가려 했는데, 승통(僧統) 요일(寥一)이 두경승(杜景升)과 함께 최충헌을 죽이려 했다. 이외에도 1203년(신종 6)에는 부석사(浮石寺)·부인사(符仁寺)·쌍암사(雙岩寺)의 승도들이 변란을 일으켰으며,<sup>6)</sup> 1211년(희종 7)에는 왕과 결탁한 승도 등이 입궁한 그를 죽이려 했으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sup>7)</sup> 1217년(고종 4)에는 거란병(契丹兵)이 침입해오자 홍왕사·홍원사(弘圓寺)·경복사(景福寺)·왕륜사(王輪寺)·수리사(修理寺)의 승도로서 중군한 자들이 최충헌을 죽이려고 꾀하기도 하였다.<sup>8)</sup>

위 기록의 승도들이 모두 교종세력이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중광사나 홍호사·귀법사를 위시하여 지방의 부석사·부인사 등 승도의 반항과 연관된 다수의 사찰이 교종계통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선종계통의 사찰로서 거기에 주석한 승도들이 무인정권과 항쟁한 경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sup>9)</sup>

무인정권에 대하여 항쟁한 사원세력은 교종세력이 중심이었으며, 그것은 당시 불교계의 형세와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 문신귀족과 결탁된 사원은 막대한 경제력을 갖추었으며 고려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무신란으로 문신귀족이 몰락하고 사원을 비호하던 왕실의 권위가 추락하면서 사원세력은 큰 타격을 받아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sup>10)</sup> 실제로 경제적 기반과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던 교종계 사원만이 당시 무인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세력이었으나, 그들의 항쟁은 끝내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4) 무신란이 일어난 이후인 1171년에 천태종의 德素가 王師로 책봉되었는가 하면, 「靈通寺住持智僞墓誌」, 『朝鮮金石總覽』上, 1919, 417쪽에 “己酉歲 典領中選… 壬子勢 四月 及常宗選 是月始有□ 錦之志”라 하였다. 곧 1189년과 1192년에도 華嚴宗의 智僞이 考試官이 되어 僧科를 주관하였다.

5) 『高麗史』 권128, 列傳41, 叛逆2, 李義方傳.

6) 『고려사』 권100, 열전13, 丁彦眞傳.

7) 『고려사』 권129, 열전42, 叛逆3, 崔忠獻傳.

8) 『고려사』 권129, 열전42, 반역3, 최충헌전.

9) 閔賢九, 「月南寺址 眞覺國師碑의 陰記에 대한 一考察—高麗 武臣政權과 曹溪宗—」, 『震檀學報』36, 1973, 25~30쪽.

10) 민현구, 위의 논문, 27~28쪽.